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

김혜란 연구원

요약

2020년 기준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추정되고, 비만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만 관리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음. 비만은 주요 신체질환의 원인이며,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률 및 합병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비만은 정신장애 발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비만으로 2035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이 비만으로 추정되며, 어린이와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유병률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만 관리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음¹⁾
 - 203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비만이 되고, 절반 이상은 과체중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동기간 어린이의 비만 유병률은 2배 이상으로 성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비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10개 국가 중 9개 국가가 저소득 국가임
 - 어린이의 경우 과도한 음식 및 당분 섭취 등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 휴대폰 및 온라인 게임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등이 원인이며, 어린 시절 비만인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비만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에서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비만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에서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비만은 주요 신체질환의 원인이며, 감염병과 관련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이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과체중 인구가 많은 국가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짐²⁾
 - 과체중 인구가 50% 미만인 70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당 31명이었으나, 과체중 인구가 절반 이상인 94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당 115명으로 4배가 증가함
 - 이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과체중 유병률이 50% 미만이었다면, 코로나19 사망자 550만 명 중 최대 300만 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비만은 정신건강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정신장애 발생 후 비만이 발생하는 것보다 비만으로 진단받은 후 정신장

1) World Obesity Federation(2023. 3), "World Obesity Atlas 2023"

2) Gen Re(2023. 4. 12), "Obesity in Asia"

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짐³⁾

- 비만 진단을 받은 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비만을 먼저 진단받은 후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음
 -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오스트리아 병원에 입원한 900만 명 환자의 입원기록 약 4,500만 건을 분석함
- 비만 진단 후에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 니코틴 중독, 불안, 섭식 및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짐
 - 비만인 경우 비만이 아닌 경우에 비해 니코틴 중독 3.37배, 조현병 1.75배, 조현정동장애 2.88배, 우울증 2.52배, 불안 2.13배, 신체형 장애 1.92배, 섭식장애 1.8배 그리고 인격장애 1.56배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비만 진단 후 젊은 연령대에서 조현병, 신체형장애(신체질환으로 보이는 증상을 나타내지만, 심리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판단되는 장애)와 인격장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조현병과 니코틴 중독을 제외한 다른 정신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니코틴 중독은 비만 여성과 남성에게서 각각 8.58%, 16.66%로 나타나며, 우울증은 비만 여성(13.3%)이 비만 남성(6.61%)보다 2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만 여성의 우울증이 비만이 아닌 여성보다 약 3배 이상 높음

<표 1> 비만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정신장애 발생률

(단위: %)

내용		니코틴 중독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조울증	우울증	재발성 우울증	기분 부전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섭식 장애	인격 장애
비만	전체	12.56	0.94	0.63	0.73	10.01	3.53	0.73	2.71	1.66	0.52	1.09
	여성	8.58	1.02	0.82	0.88	13.30	4.71	1.00	3.44	2.22	0.79	1.49
	남성	16.66	0.87	0.43	0.57	6.61	2.32	0.45	1.97	1.08	0.23	0.68
비만이 아님	전체	3.73	0.54	0.22	0.36	4.01	1.43	0.27	1.29	0.87	0.29	0.70
	여성	2.63	0.41	0.24	0.39	4.80	1.74	0.33	1.61	1.11	0.51	0.76
	남성	4.83	0.67	0.20	0.33	3.21	1.12	0.21	0.97	0.63	0.07	0.65

주: 비만 환자 161,185명, 비만이 아닌 환자 3,006,526명을 분석함

자료: Michael Leutner et al.(2023), "Obesity as pleiotropic risk state for metabolic and mental health throughout life"

○ 비만 예방 및 치료 조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비만으로 전 세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35년까지 매년 전 세계 GDP의 약 3%인 4조 3,2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3%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와 비슷함⁴⁾
- 경제적 손실에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비만으로 인한 직원의 결근과 직장에서의 생산성 저하 및 보험산업에서의 장애 보험 지급 증가 그리고 조기 퇴직 및 조기 사망률에 의한 손실 등 간접비용인 생산성 손실이 포함됨

3) Michael Leutner, Elma Dervic, Luise Bellach, Peter Klimek, Stefan Thurner, and Alexander Kautzky(2023), "Obesity as pleiotropic risk state for metabolic and mental health throughout life", Translational Psychiatry

4) World Obesity Federation(2023. 3), "World Obesity Atlas 2023"